

농촌여성의 교육참여 경험과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박공주*, 김경미, ¹이길순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¹신구대학교 가정교육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학자들이 21세기의 화두를 언급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다. 강한 신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힘의 시대, 즉 남성의 시대는 가고 지식과 정보·창의력이 강조되는 시대가 돌아옴으로써 여성들의 섬세한 감각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없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제반 양상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계속 학습에 참여하도록 작용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교육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여성의 사회교육은 여성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토록 함으로써 여성 자신의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다.

농촌여성의 경우, 농촌의 노동력 유출로 농업노동력이 여성화, 고령화되어 '99년 현재 농가 인구의 51.6%, 농업주종사자의 52.6%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농촌여성의 농업 노동투하량이 47.2%(농림부, 2001)로 나타나 농가에서 차지하는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과거에 비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또 남성에 비해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농업인으로써 습득해야 할 전문지식과 기술 교육 기회는 물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도 적다.(임광명, 1992 김경미, 1999)

따라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교육은 농업의 기간 노동력인 여성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촌여성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어 농업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전문농업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영농에 필요한 농사 기술과 생활인으로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 및 영농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연구내용

- (1) 교육참여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 여성농업인 교육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 교육참여자의 교육환경 실태는 어떠한가?
 - 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및 교육환경 실태
- (3) 교육참여자의 참여특성별 요구는 어떠한가?
 - 일반 특성 및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참여 요구
- (4) 교육참여자의 교육내용별 요구는 어떠한가?
 - 교육분야별 교육요구
 - 받고싶은 교육의 우선순위
 - 교육참여자의 교육경험과 교육희망에 대한 요구

나. 연구범위 및 제한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경기, 충북,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파악된 결과를 모든 지역의 농촌여성 요구로 보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1차적으로 농촌여성의 생활실태와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 관련 문헌과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경기, 충북,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36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도구의 개발은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문항을 선정하였고, 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교육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영농특성, 교육 참여자의 교육참여 실태 및 교육환경 요구 실태, 교육 참여자의 참여특성별 요구, 교육참여자의 교육분야별 요구, 받고싶은 교육의 우선순위, 교육희망에 대한 요구 등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자의 특성과 교육환경의 관계, 교육 참여자 특성별 교육요구와 내용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χ^2 검정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농촌여성의 지위와 역할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농에 의한 농촌의 노동력 도시유출로 농업노동력이 여성화·고령화되고 있어, 농촌여성의 경우 기존의 가사노동과 농업노동 등으로 인해 노동량의 증가와 역할이 증대되었다(임광명, 1992) 이러한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는 의사결정권을 높이고 농촌여성 지위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과도한 노동에 집중함으로써 농촌여성을 위한 질적 개선의 확대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농촌여성의 교육적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의 체계적 접근이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능력 및 의식개발은 사회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큼의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학교교육의 기회도 적지만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아직까지도 남성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김정자, 1986) 현대여성 사회교육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즉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인력의 노령화와 함께 여성화의 현상이 뚜렷하여 여성인력이 농업인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근래 쌀소비의 감소와 과일, 채소의 소비량 증가에 따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여성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과수나 채소와 같은 영농형태로 늘어나고 있다(안덕현 외 2001). 노동참여율의 변화를 보면 '65년 30.3%에서 2001년 47.2%(농림부, 2001)까지 증가하여 여성의 농업노동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까지 되었으며 이는 영농에서 여성의 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안덕현외, 2001).

농촌여성의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는 '8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교육에 있어서도 요구분석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요구분석을 통해서 농촌여성의 의견과 필요성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을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라순애, 199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연구로 농촌여성은 가사일과 농사일을 병행함으로써 만성적인 노동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는 농업 보조자로서 단순노동만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대우 받아왔으며, 여성 스스로도 주체적인 영농인으로서의 인식이 희박하고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황수정, 2002). 우리나라의 농촌여성은 실제 역할 수행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농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하하면서도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농업의 보조자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김중숙, 1994). 농촌여성의 전문사회교육은 가정적·사회적 역할 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생산자로서의 참여확대를 포함한 농업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생활 및 영농에 필요한 지식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결과

1. 교육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은 30대가 10.9%, 40대가 53.6%, 50대가 31.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30~50대의 중장년층 여성이 95.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력은 중졸이 41.4%로 가장 많았고 고졸도 32.1%를 나타내 중·고졸의 학력자가 73.5%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습단체는 생활개선회가 58.7%, 새마을부녀회 15.9%, 농가주부모임이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는 1.5ha 이상인 농가가 51.9%로 전국평균 농가당 영농규모인 4,110평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농유형은 벼농사농가가 58.4%, 노지와 시설 채소농가가 23.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논밭중심 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사대상자의 영농경험연수는 10년 이상인 전문농업인이 8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 가족의 영농참여율은 남편은 47.8%, 주부인 본인은 43.1%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투하량이 남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2. 교육참여자의 교육환경 실태 및 요구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자의 교육환경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참여회수, 참여동기, 참여목적 등과 교육훈련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시기,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방법, 강사선정 및 교육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 교육참여의 일상적인 실태

<표 1>의 교육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참여 99.2%, 비참여 0.8%로 대다수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1년 중에 교육에 참여하는 회수도 2회 이상이 80.3%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교육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자발적인 참여는 34.2%이었으나, 주변인이나 교육실시 기관의 권유·요청에 의한 것이 64.5%로 나타나 현재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참여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교육참여 목적은 1순위가 교육내용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54.5%)였고, 2순위는 생활기술을 익히기 위해서(18.9%), 3순위는 농사기술을 익히기 위해서(16.4%)로 나타나, 농촌여성 대부분이 무엇이든지 배울 기회를 원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정보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교육참여 실태

구 분		N(%)	구 분		N(%)
교육 참여 회수 (N=366)	교육에 참여해 본적 없음	3(0.8)	교육 참여 등 기 (N=366)	자발적 참여	125(34.2)
	1년에 1회 정도 참여	69(18.9)		남편, 친구 등 주변 사람들 권유	50(13.7)
	1년에 2~3회 정도 참여	161(44.0)		교육실시 기관 요청, 권유	186(50.8)
	1년에 4회 이상 참여	133(36.3)		기 타	5(1.4)
교육 참여 목적 (N=365)	농사기술 익히기 위해서	60(16.4)	교육 참여에 가 장 어 려 운 점 (N=366)	농사일로 시간 내기가 힘들	198(54.1)
	생활기술 익히기 위해서	69(18.9)		가사일로 시간 내기가 힘들	67(18.3)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199(54.5)		자녀양육으로 시간 내기가 힘들	14(3.8)
	사회 활동을 잘해 보기 위해	33(9.0)		교육 장소까지 교통이 불편함	71(19.4)
	기 타	4(1.1)		교육비 등 돈이 많이 듦	5(1.4)
			남편 등 가족들이 싫어함	2(0.5)	
			기 타	9(2.5)	

여성이 교육에 참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농사일, 가사일로 시간내기가 힘들어서가 72.4%로 많았는데 이는 농촌여성에게 체계적인 생활시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교육장소까지 교통이 불편함도 19.4%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교육장소 선정도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 교육훈련비 부담

<표 2>는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다. 응답 중 교육비를 자부담으로 낸 적이 있었다가 35.2%, 없었다는 64.8%로 나타나, 아직까지 자부담보다는 교육기관의 부담률이 더 높았으며, 1회 교육시 교육참가자 1인당 평균 자부담액은 34,1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여성이 바라는 교육비 부담처는 교육기관과 본인의 공동부담이 50.7%이었고, 교육기관 전담부담도 47.4%로 나타나, 교육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차츰 교육의 자부담률이 높아져 가는 현시점에 교육비 자부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교육훈련비 부담 실태

구 분		N(%)	구 분		N(%)
교육비 부담여부 (N=364)	있었다	128(35.2)	앞으로 교육비 부담처 (N=365)	자가 부담	7(1.9)
	없었다	236(64.8)		교육기관과 본인의 공동부담	185(50.7)
				교육기관 부담	173(47.4)
교육비 부담액	1회당 1인 평균금액 : 34,100원				

다.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농촌여성이 일년 중 교육받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는 3월 19.0%, 2월 16.5%, 11월 12.0%로 나타났는데, 이는 11월~3월 사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5~6월 2.8%, 9~10월 9.5%로 나타나 이 시기에는 교육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간에 대한 요구는 1개 과정당 2일이 47.9%, 1일이 29.6%, 3일이 14.2%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농촌여성 대상 교육은 1~3일의 단기간에 걸친 교육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고 난 뒤 다시 받는 교육주기는 6개월에 한번이 37.2%, 3개월에 한번이 33.3%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는 3~6개월 한번씩 교육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여성 1인에게 연 2~4회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교육장소, 교육방법 및 강사선정

교육장소와 교육방법 및 강사선정에 대한 분석은 <표 3>과 같다.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별 요구정도를 보면 시군단위 43.2%, 도단위 35.0%로 두 지역에 대한 응답율이 높은 것은 중소도시 정도의 시군·도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은 개인주택(0.8%)이나 마을회관(3.0%) 보다는 사회교육기관(94.5%)을 월등히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교육기관의 시설이 교육받기에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이수 시에 선호하는 교육기관은 생활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 농촌진흥기관을 67.9%가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이 각 문화센터를 희망하고 있었다. 영농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을 때 선호하는 교육기관은 농촌진흥기관이 83.0%로 가장 높았고, 농협이 9.7%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 중 교육대상자의 참여도가 높은 실기실습교육이 45.9%로 가장 높았고 현장견학이 16.7%를 보이고 있어, 교육생의 참여식 교육을 주로 선호하고 있었고, 강의는 31.4%이었다.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강사는 농림·연구지도직 공무원이 76.2%로 농업관련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교수·의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19.1%로 나타났다.

표 3. 교육장소·교육방법·강사선정의 실태

구 분	항 목	N(%)	구 분	항 목	N(%)	
지역별 교 육 장 소 (N=366)	중앙단위	31(8.5)	분야별 교 육 장 소 (N=366)	생활기술	농촌진흥기관(센터, 기술원, 농진청)	247(67.9)
	도단위	128(35.0)		교육장소	행정기관(시군, 도청)	26(7.1)
	시·군단위	158(43.2)		농협	36(9.9)	
	읍·면·동단위	46(12.6)		각 문화센터	52(14.3)	
	리/마을단위	3(0.8)		학교	3(0.8)	
시설별 교 육 장 소 (N=363)	개인주택	3(0.8)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장소 (N=359)	농촌진흥기관(센터, 기술원, 농진청)	298(83.0)	
	마을회관	11(3.0)		행정기관(시군, 도청)	18(5.0)	
	사회교육기관	343(94.5)		농협	35(9.7)	
	기타	6(1.7)		각 문화센터	7(1.9)	
				학교	1(0.3)	
교육방법 (N=366)	강사의 강의	115(31.4)	교 육 강 사 선 정 (N=366)	농업관련 공무원(농림, 지도, 연구직)	278(76.2)	
	교육생 토의·학습	18(4.4)		교수, 교사	53(14.5)	
	실기·실습 교육	168(45.9)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인사	17(4.7)	
	현장견학	16(16.7)		시·군청 행정직 공무원	8(2.2)	
	사례발표	2(0.5)		마을 유지	3(0.8)	
	시청각 교육	4(1.1)		기타	6(1.6)	

마. 생활과 농사관련 기술내용의 통합운영식 교육운영에 대한 요구

<표 4>는 생활기술과 농업기술 교육의 통합운영에 대한 요구도이다. 농촌여성이 교육에 참여할 때 농업기술과 생활기술을 통합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구가 61.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생활기술과 영농기술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들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표 4. 생활기술과 농업기술교육 통합운영 요구

구 분	N(%)	
생활기술과 농업기술 교육통합운영 (N=360)	1분야만 받고 싶음	132(36.1)
	2분야 이상 통합하여 받고 싶음	225(61.5)
	기타	3(0.8)

3. 농촌여성 교육참여자의 특성별 교육요구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특성별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5>와 같이 학력, 영농규모, 영농유형, 교육비 부담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교육참여요구 차이정도에 대해 χ^2 검정을 하였다.

가. 일반특성별 교육참여요구

(1) 학력별 교육참여도

학력에 따라서 연 4회 이상으로 교육참여 회수가 많은 대상은 전문대졸 47.6%, 고졸 42.7%, 중졸 31.1%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높고, 낮을수록 참여경험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최운실('94) 연구와 같은 맥의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학력별로 교육참여 회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졸에서부터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영농규모별 교육참여도

영농규모에 따른 교육참여도는 영농규모가 1.5~2ha미만인 농가에서는 연 4회 이상의 교육참여율이 46.3%로 가장 높았고, 2ha이상인 농가가 40.9%이었다. 영농규모별로 교육참여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영농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교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영농유형별 교육참여도

영농유형을 벼농사,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6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벼농사 농가에서는 연 2~3회 교육참여율이 48.8%로 가장 높았고, 노지채소 농가에서는 연 4회 이상 교육참여율이 42.0%, 시설채소 농가에서는 2~3회 교육참여율이 41.2%로 높았다. 과수(41.7%)와 축산농가(62.5%)에서도 연 4회 이상 교육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농유형에 따른 교육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참여도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교육참여자의 참여율은 4회 이상이 46.9%, 2~3회가 40.6%로 나타났으며,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집단의 교육참여율은 4회 이상이 30.5%, 2~3회가 45.8%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참여도는 의미있는 응답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집단일수록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기관의 여성교육에 있어서 교육비의 부담비율은 학습자와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도 낮추어지지 않는 적절한 선에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일반특성에 따른 교육참여요구

단위 : 명(%)

구 분	교육참여횟수				계	χ ²	
	참여안함	1회	2-3회	4회이상			
학력별 교육참여도	무 학			1(25.0)	3(75.0)	4(100.0)	24.41* df=12
	초 졸	3(2.6)	14(19.4)	36(50.0)	22(30.6)	72(100.0)	
	중 졸		40(26.5)	64(42.4)	47(31.1)	151(100.0)	
	고 졸		11(9.4)	53(45.3)	50(42.7)	117(100.0)	
	전문대졸 이상		4(19.0)	7(33.3)	10(47.6)	21(100.0)	
계	3(0.8)	69(18.9)	161(44.1)	133(36.2)	366(100.0)		
영농규모별 교육참여도	0.5ha 미만		16(30.2)	22(41.5)	15(28.3)	53(100.0)	27.75** df=12
	0.5~1ha미만	3(2.0)	8(12.5)	33(51.6)	23(35.9)	64(100.0)	
	1~1.5ha미만		20(33.9)	24(40.7)	15(25.4)	59(100.0)	
	1.5~2ha미만		8(19.5)	14(34.1)	19(46.3)	41(100.0)	
	2ha 이상		17(11.4)	68(45.6)	61(40.9)	149(100.0)	
계	3(0.8)	69(18.9)	161(44.0)	133(36.3)	366(100.0)		
영농유형별 교육참여도	벼 농 사	1(0.5)	35(17.1)	100(48.8)	69(33.7)	205(100.0)	39.85*** df=15
	노지채소	2(8.3)	8(16.0)	21(42.0)	21(42.0)	50(100.0)	
	시설채소		12(35.3)	14(41.2)	8(23.5)	34(100.0)	
	과 수		9(25.0)	12(33.3)	15(41.7)	36(100.0)	
	화 훼		1(4.2)	2(100.0)	15(62.5)	2(100.0)	
	축 산			6(25.0)		24(100.0)	
계	3(0.9)	65(18.5)	155(44.2)	128(36.5)	351(100.0)		
교육비부담별 교육참여도	부 담 함		16(12.5)	52(40.6)	60(46.9)	128(100.0)	12.59** df=3
	부담하지 않음	3(1.3)	53(22.5)	108(45.8)	72(30.5)	236(100.0)	
	계	3(0.8)	69(19.0)	160(44.0)	132(36.3)	364(100.0)	

*p<.05 **p<.01 ***p<.001

4. 농촌여성 교육참여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자의 교육내용 요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연령, 학력, 영농경험에 따른 교육내용별 요구를 분석하였다.

가. 교육분야별 교육요구

(1) 연령에 따른 생활기술교육내용 요구

받고싶은 생활기술교육내용을 1~3개, 4~6개, 7~9개로 나누었는데, 7~9개 교육내용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40대가 61.7%, 50대가 52.2%, 60세 이상이 14.3% 이었고 4~6개 교육내용의 요구는 30대 42.5%, 40대 34.7%, 60세 이상이 28.6%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생활기술교육내용 요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나이가 젊을수록 생활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력에 따른 영농기술교육내용 요구

학력에 따른 영농기술교육의 요구는 같이 받고싶은 영농기술 교육내용을 1~2개, 3~4개, 5~6개로 구분하였을 때 비교적 많은 양인 5~6개의 영농기술 교육내용을 요구하는 학력간 비교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이상인 61.1%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 57.7%, 중졸 56.1%로 나타났다. χ^2 검정결과 학력간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농경험에 따른 농업경영 요구

받고싶은 농업경영 교육내용을 1, 2, 3개로 구분하고 농사연수와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면, 3개의 농업경영교육내용을 요구하는 집단은 농사연수가 20~29년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년이 64.1%이었으며, 30년 이상은 50.9%로 나타났다.

표 6. 교육내용별 교육요구

단위 : 명(%)

구 분		받고싶은 교육 내용			계	X ²
		1~3개	4~6개	7~9개		
연령에 따른 생활기술 교육내용요구	29세 이하			1(100)	1(100.0)	60.35*** df=8
	30~39세	1(2.5)	17(42.5)	22(55.0)	40(100.0)	
	40~49세	7(3.6)	68(34.7)	121(61.7)	196(100.0)	
	50~59세	11(9.6)	44(38.3)	60(52.2)	115(100.0)	
	60세 이상	8(57.1)	4(28.6)	2(14.3)	14(100.0)	
계		27(7.4)	133(36.3)	206(56.3)	366(100.0)	

구 분		받고싶은 교육 내용			계	X ²
		1~2개	3~4개	5~6개		
학력에 따른 영농기술 교육내용요구	무 학	2(50.0)		2(50.0)	4(100.0)	22.50** df=8
	초 졸	5(6.9)	28(38.9)	39(54.2)	72(100.0)	
	중 졸	9(6.1)	56(37.8)	83(56.1)	148(100.0)	
	고 졸	19(17.1)	28(25.2)	64(57.7)	111(100.0)	
	전문대졸 이상	4(22.2)	3(16.7)	11(61.1)	18(100.0)	
계		39(11.0)	115(32.6)	159(56.4)	353(100.0)	

구 분		받고싶은 교육 내용			계	X ²
		1개	2개	3개		
영농경험에 따른 농업경영 요구	9년 이하	3(7.3)	15(36.6)	23(56.1)	41(100.0)	19.44* df=8
	10~19년	9(7.7)	33(28.2)	75(64.1)	117(100.0)	
	20~29년	17(13.9)	24(17.7)	81(66.4)	122(100.0)	
	30~39년	15(28.3)	11(20.8)	27(50.9)	53(100.0)	
	40년 이상	2(18.2)	2(18.2)	7(63.6)	11(100.0)	
계		46(13.4)	85(24.7)	213(61.9)	344(100.0)	

*p<.05 **p<.01 ***p<.001

나. 교육분야별 받고싶은 교육의 우선 순위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할 교육을 생활기술교육, 영농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표 7>, 받고싶은 교육의 우선순위는 생활기술교육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영농기술교육으로 22.5%, 농업경영교육이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생활기술과 농업기술 교육프로그램의 통합 개발시 적용되어져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7. 교육분야별 받고싶은 교육의 우선 순위

구 분	사례수(%)
생활기술교육	227(62.2)
영농기술교육	82(22.5)
농업경영교육	56(15.3)
계	365(100)

다. 교육경험과 교육희망에 대한 교육요구

그 동안 받았던 교육내용과 앞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대한 요구를 비교 분석하였다<표 8>.

(1) 생활기술교육내용의 교육경험과 요구

생활기술분야의 교육내용을 크게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교육경험과 교육희망을 비교하였는데, 교육경험이 많았던 생활기술내용은 「건강관리·피로회복」이 70.5%로 가장 높았고, 「농산물조리가공·식생활」이 68.9%이었으며 그 다음이 「취미·교양」으로 65.2%을 차지하였다. 이 항목들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교육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농산물조리가공·식생활」 부분에 대한 교육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활기술분야 중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는 「건강관리·피로회복」이 83.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항목은 교육경험과 교육희망 모두 응답율이 높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컴퓨터교육」이 80.9%로 가장 높았고, 「가족관계·가계관리」가 79.5%로 높았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촌에 개인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진 이 시점에 컴퓨터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한 결과이며, 농촌에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족문제와 그 갈등해결에 대한 수요에 상응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생활기술 교육내용의 총 교육경험율은 56.6%이었으며, 앞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74.9%로 나타났다.

생활기술분야에 대한 교육경험 내용과 교육희망 내용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생활기술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교육분야별 교육희망에 대한 교육요구

단위 : 명(%)

구	분	교육경험	교육희망
생활기술 교육내용의 교육경험과 교육희망	가족관계·가계관리	205(56.0)	291(79.5)
	건강관리·피로회복	258(70.5)	307(83.9)
	농촌환경조성·주생활	230(62.8)	254(69.4)
	농작업환경·피복장비	165(45.1)	233(63.7)
	농산물조리기공·식생활	252(68.9)	283(77.3)
	부업기술교육	120(33.1)	265(72.4)
	생활문화·전통놀이	190(52.5)	273(74.6)
	취미·교양	236(65.2)	266(72.7)
	컴퓨터교육	208(57.9)	296(80.9)
	계	1,864(56.6)	2,468(74.9)
영농기술 교육내용의 교육경험과 교육희망	작물별 품종선택·파종	172(47.0)	278(76.0)
	시비기술	151(41.3)	267(73.0)
	생육관리·육묘	114(31.1)	268(73.2)
	병충해 방제·생리대책	220(60.1)	305(83.3)
	수확·저장	125(34.2)	274(74.9)
	농기계교육	135(36.9)	231(63.1)
	계	917(27.8)	1,623(49.3)
농업경영 교육내용의 교육경험과 교육희망	농업경영설계·영농기록 장기록	134(36.6)	279(76.2)
	농산물유통·판매	109(29.8)	286(78.1)
	농산물저장·포장	129(35.2)	303(82.8)
	계	372(11.3)	868(26.4)

* 복수응답 결과임

(2) 영농기술 교육내용의 교육경험과 요구

영농작물별로 교육참여율이 높은 내용은 「병충해 방제·생리대책」이 6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작물별 품종선택·파종」으로 47.0%이었고 「시비기술」이 41.3%이었다.

교육희망은 「병충해 방제·생리대책」이 8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작물별 품종선택·파종」 76.0%이었으며 「생육관리·육묘」가 73.2%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병충해방제·생리대책」과 「작목별 품종선택·파종」은 교육경험율과 교육희망율이 모두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농사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면서 필수적인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영농기술교육내용의 총 교육경험율은 27.8%이었으며, 앞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49.3%로 교육경험은 적은 반면 교육요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3) 농업경영교육 내용의 교육경험과 요구

교육참여율이 가장 높은 내용은 「농업경영설계·영농기록장기록」이 36.6%로 높았고, 다음이 「농산물저장·포장」으로 35.2%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농산물유통·판매」는 29.8%이었다. 교육희망은 「농산물저장·포장」이 8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산물유통·판매」는 78.1%이었고 「농업경영설계·영농기록장기록」은 76.2%이었다. 농업경영분야의 교육경험율은 11.3% 교육희망율은 26.4%로 생활기술이나 농업기술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여성이 전문농업 경영인이 아닌 농사짓는 보조 역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농촌여성은 평생을 농사일에 헌신하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농업의 보조인력으로 여겨져 왔고, 전문농업인이 아닌 주변인으로 머물러 왔다. 농업·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평가받으려면 전문농업인으로서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기술과 경영마인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은 일반적인 생활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특화된 목표와 교육내용을 갖춘 전문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 영농유형별로 영농기술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아울러 농업경영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고려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율이 43.1% 보이고 있고, 농업 노동투하량이 경영주(남성)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시 생활기술과 영농기술 분야 통합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교육이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와 교육요구에 학력, 연령, 교육비 부담, 영농유형, 영농경험 정도, 영농규모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요인들을 고려한 계층별, 영농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기술, 영농기술, 농업경영의 3개 교육분야별 교육경험과 교육요구도와의 관계에서 교육경험이 많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마련과 농촌여성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이 개발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01, 농촌여성의 계층화 현상과 교육서비스 변화 전략.
 김정자, 1986,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차별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종숙·정명채, 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양희 등, 1999, 농촌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연구.
 김학성, 1989,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농민교육과 농촌지도사의 역할에 관한연구.
 농림부, 1999,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농촌진흥청, 1998,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력 투하시간.
 라순애, 1992, 농촌주부의 생활개선교육 요구분석
 서규선, 1989, 농촌사회교육요원의 조직풍토 지각과 직무태도의 관련성 연구.
 이금옥, 1994,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조직활동참여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임광명, 1992, 농촌여성 생활개선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요구 분석적 접근.
 최운실, 1994,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접근, 한국여성사회교육원.
 한국농업전문학교, 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여성개발원, 1997, 여성사회교육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5,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7, 여성사회교육 요구분석.
 한국여성개발원, 1999, 경기도여성농업인 전문프로그램 개발.
 황수정, 2002, 농촌여성의 사회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

저자 연락처 : 031-299-0450

이메일 : parkgj@rda.go.kr